

세계 경제 동향

● IMF, '26년 세계 성장률 3.0%로 하향·한국은 2.6%로 상향 | '26-7-8 IMF; 재정경제부

- 국제통화기금(IMF)는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중동전쟁 공급충격과 AI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. '26년 세계 성장률은 3.1%(4월 전망) → 3.0%로 하향, '27년은 3.2% → 3.4%로 상향.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·식품가격 상승을 반영해 4.7%(4월 대비 +0.3%p)로 상향
- 호르무즈 통항 차질이 7월 중순부터 완화되어 '27년 3월경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전망
- 한국 성장률은 '26년 1.9%(4월 전망) → 2.6%(+0.7%p, 발표 대상 30개국 중 최대 상향폭), '27년 2.1% → 2.5%로 상향. IMF는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(한국·대만·태국·말레이시아)으로 언급하며, 반도체 수출호조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고 평가
- ❖ 세계 물가상승률 상향에 대한 하반기 국내 물가 안정 대책 마련 필요

● 미·이란, 무력 공방 재개 | '26-7-8 UN News

- 7월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 피격 등 미·이란 간 공격·반격이 재개되며 에너지 시장이 재차 동요.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“전면전 복귀 시 역내 주민과 국제 평화·안보, 세계경제 전체에 재앙적 결과”를 경고
- 유엔은 연료·비료의 글로벌 부족 사태는 피했으나 올해 충격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며, 불안정 지속 시 “가격 재상승과 대규모 원자재 부족”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
- ❖ 미·이란 전쟁 재개 시 비료 등 농자재 국제가격의 재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수급·비축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| '26-7-3 재정경제부; '26-7-6 금융위원회

-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전담반(TF, 재경부 1차관 주재)을 가동하고 지원방안 발표
- (근로자) 체불임금 대지급금 1인당 최대 2,100만원, 생계비 용자(연 1.5%, 1,000만원 한도), 실업급여·취업지원 등
- (협력업체)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, 신용·기술 보증기금 특례보증 3,500억원 등 총 4,400억원 유동성 지원
- 7월 6일 금융위원회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은 협력업체에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 약 5조 원 지원.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·중견기업을 신규 포함하고 최대 3,000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
- ❖ 농식품부는 6월 미수금 피해 산지유통조직에 3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함. 회생절차 폐지로 미수금 회수 불확실성·판로 축소 위험이 커진 만큼 지원 연장·확대와 대체 판로 확보 검토 필요

● 코스피, 사상 최고 경신 후 조정 | '26-7-9 한국은행

-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·종전 기대로 6월 22일 사상 최고치(9,114)를 경신한 뒤,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(5월 -48.9조·6월 -57.5조·7월 1~7일 -14.6조원)로 조정
- 6월 국고채금리(3년물)는 인플레이션 우려·금리인상 기대로 6월 8일 연중 고점(3.94%)까지 상승했다가 미·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며 상승폭 축소. 6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(+4.3조 원)와 개인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7.6조원 증가
- ❖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농가 정책자금·경영자금 금리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FAO, 세계식량가격지수 2개월 연속 하락 ▮ '26-7-3 FAO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가 발표한 올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월 124.1p에서 시작하여 4월 정점(131.0p)을 기록한 이후 6월 130.3p까지 2개월 연속 하락.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(130.8p) 대비 0.3% 하락
 - (곡물 -3.5%) 흑해산 밀 수확 호조, 원유가격 하락 및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며 지수 하락
 - (유지류 +3.8%)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감소 우려, 호주·캐나다 유채 작황 부진으로 지수 상승
 - (육류 +0.4%) 브라질산 가금육 수출가격 상승, 세계 양고기 수출 가능 물량 부족으로 지수 상승
 - (유제품 -1.5%) EU와 미국의 원유 공급 개선 및 버터·치즈 생산 증가로 수출 가능 물량이 확대되어 지수 하락
 - (설탕 -5.7%) 브라질 에탄올 가격하락으로 사탕수수가 설탕 생산에 배분, 브라질산 설탕 수출 강세로 지수 하락
- ❖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유지류·육류는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, 품목별 차별적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○ 미국, 비료 생산 확대를 위한 5억 달러 프로그램 추진 ▮ '26-7-1 USDA; '26-7-8 USDA 농촌개발국

- 미국 농무부(USDA)는 '26년 7월 1일 국내 비료 생산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'비료 투자·확대 프로그램(FIELDS)'을 발표,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음.
 - FIELDS는 질소, 인산염, 칼륨, 황 등 생산시설의 신·증설에 자금을 지원하며, 개별 지원액은 1,500만 ~ 1억 5천만 달러 사이에서 차등 지원함. 지원 우선순위는 즉시 착공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가능한 사업에 부여함.
- ❖ 비료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기반 및 비축 역량 강화 등 수급 불안 대책 검토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관계부처합동, 국내 최초 농림위성 발사 ▮ '26-7-2 농림축산식품부; '26-7-7 관계부처합동

- '26년 7월 7일 우주항공청·농진청·산림청이 공동개발한 농림위성(차세대중형위성 4호)이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됨.
 - 농식품부는 농림위성을 농지 실태조사·직불제 이행점검, 농산물 수급 조절, 농업재해 대응 등에 활용하고, 위성영상과 작물·기상·토양 데이터를 결합한 국산 농업 AI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임.
- ❖ 위성 데이터 기반 농정 전환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, 향후 작황예측·재해대응 체계에 실효성 있는 적용 요망

▮ '25년 ~ '26년 6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▮

